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국화 현상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대응

김미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 I. 서론
- II.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정책
 - 1.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정책결정요인
 - 2.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경제전략 및 SCO의 역할
- III.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영향력 확대
- 1. 중국의 대중양아시아의 무역 및 직접투자
- 2. 중국의 대중양아시아의 에너지투자 및 협력
- IV.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과 중국화 현상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 V. 결론

초 록

중국은 카스피해 유전을 통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이미 이 지역에 대한 진출과 경쟁을 본격화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주요 목표로 대중양아시아 정책을 실행해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SOC지원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무차별적인 에너지자원 확보, 중저가상품 시장을 장악하여 이 지역에서 “중국화 현상”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화 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한 한국논문은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중국화 현상을 주제로 무엇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고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정책 전략, 그 중에서도 경제전략을 위해 중국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그 중심에 있는 SCO의 역할을 중국화 현상의 경제적 측면을 증명하고자, 대중양아시아 교역액과 직접투자, 에너지투자 및 협력부문을 다룬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의 대중양아시아 교역액, 투자 부분을 중국과 비교하여 중국화 현상이 얼마나 확대되어 있는지를 보이고,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을 살펴본다.

I. 서론

21세기 유라시아 대륙에서 강대국 간의 세력 경쟁은 중앙아시아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만큼 중앙아시아는 현대 국제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이것은 이 지역을 둘러싸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들이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자원 개발과 확보를 두고 치열한 자원외교를 벌이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중국은 서부의 신장지역과 중앙아시아 3개국을 연결하는 가스관이 2009년 12월 12일 개통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루트를 확보하게 됐다. 총 길이 7000km의 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투르크메니스탄 동남부의 아무다리야에서 시작해 우즈베키스탄을 관통, 카자흐스탄의 아타수,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우루무치시를 연결하면서 연간 400억³m³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게 된다. 중앙아시아의 천연가스가 중국으로 가는 첫 주요 수출길이 되는 이 가스관은 중앙아시아의 거대한 에너지 공급에 접근한 중국의 수년간의 조용한 외교의 절정이라도 평가 받았다.¹

이처럼 중국은 카스피해 유전을 통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이미 이 지역에 대한 진출과 경쟁을 본격화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를 중화경제권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대 중앙아시아 정책을 실행해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SOC지원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무차별적인 에너지자원 확보, 중저가상품 시장을 장악하여 이 지역에서 차이나 임팩트(China impact)현상을 야기하고 있다². 이러한 차이나 임팩트를 본 논문에서 본인은 “중국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강조하고자 한다. 이 “중국화”라는 용어는 Vladimir Paramonov가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사용한 개념이다. 그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한 것과 성공적으로 세계화에 적응한 것은 세계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로 본다고 지적하면서 1990년대에, 어디에서든 세계화라 하면 “미국화(Americanisation)”를 떠올렸지만 현재는 더 큰 의미에서 “중국화(Chinification)”라고 부른다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본 논문에서 이러한 “중국화”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필자는 경제분야에서의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국화” 현상을 증명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현재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얼마나 확대되어

¹ 신동아, [해외화제] 중국 ‘석유·가스’ 싹쓸이, 한국 에너지안보 위협, 윤성학, 2010년 2월 1일 기사

²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진출전략”. p.36.

있는지를 대외정책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증명하면서 중양아시아의 중국화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둘째, 앞으로 중양아시아지역의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임을 주장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제II장에서는 중국화 현상을 밝히기 이전에 중국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중양아시아에 접근하게 되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외정책적 측면에서 중국의 대 중양아시아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제III장에서는 중국과 중양아시아의 교역량, 직접투자, 에너지 투자를 이용하여 이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을 평가해보고, 제IV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되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간략하게 무역액과 투자량을 이용하여 비교해 보고, 이를 통해 중국화 현상이 얼마나 확대되어 있는지를 밝힐 것이며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까지 다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V장 결론에서는 논문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 함께 이 지역의 중국화 현상을 강조하고, 따라서 앞으로 중국화 현상은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이며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지를 전망해 볼 것이다.

II.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정책

1.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정책 결정 요인

중양아시아 국가들은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차례로 독립하면서 국제무대에 다시 등장했다. 중국과 중양아시아 국가들간의 관계 역시 이들 국가의 독립 이후 실질적으로 다시 형성되었다. 1991년 말 소련이 공식 해체된 직후 중국은 중양아시아 5개국의 독립을 즉시 승인했으며, 다음해 1월에는 대외경제무역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중국의 신속한 대응은 이들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적극성과 능동성을 입증한다. 중국은 이들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쌍무적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했으며, 다수의 협정을 체결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중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를 활용하여 이를 발판으로 날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량에 대비하는 등 지역안보에서 지역 경제협력으로 발전하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왔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현재 중양아시아는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어 중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지역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중양아시아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최우선 국익인 국가통합과 관련된 문제이다. 중국 서부의 신장-위구르지역에는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이슬람 세력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국경 너머의 이슬람 근본주의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활동이 격화된다면 그 자체로서도 문제가 되지만 인근 티베트 분리독립운동에 파급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중국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영토적 통일성을 위협하는 신장-위구르지역의 분리독립운동³을 차단하고 서부영토를 보전함으로써 단일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다. 또한 석유자원과 운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장-위구르지역의 안정은 중국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 하며 이것이 이 지역 개입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다.

둘째, 중국은 '9.11'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규모 군사활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력 배치로 인해 서부 국경지역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 미국의 중앙아시아 주둔은 중국으로서는 안전한 후방지역의 상실을 의미한다.⁴ 따라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강화는 중국에게는 미국에 대한 대항력을 증강하는 커다란 지렛대로서 작용하게 된다. 중국이 이들 국가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군사합동훈련 등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에 잘 부합된다.

셋째, 중국은 지난 기간 경제개발성공으로 중국 동부해안지역은 크게 발전시켰으나, 상대적으로 내륙과 서부지역은 그러지 못하였다.⁵ 낙후된 서부 내륙지방은 오직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해서만 유럽과 중동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중국이 중앙아시아와 교류를 확대하고 실크로드 복원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거쳐 터키까지 잇는 '철의 실크로드' 구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국가교통부 관계자들이 내년 초 베이징에서 건설 일정과 예산 조달, 분배 등 '실크철도'와 관련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기도 하다.⁶

넷째, 에너지수급과 관련한 전략적 이익 문제가 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관계

³ 이슬람 원리주의와 연결된 분리주의는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국 내에서 5대 민족중의 하나이며 회족(回族)이라고 불리는 약 4천5백만의 무슬림들이 주로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집중돼 거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족, 만주족, 몽고족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적지 않은 회교도가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 내 회족(回族)사회에서 이슬람 원리주의가 득세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장-위구르 분리독립운동이 격화된다는 가정은 대만, 티베트 문제와 함께 중국 붕괴를 가져오는 내부적 요인이 될 것이다. 박상남, 『현대 중앙아시아』, p.161

⁴ Ibid, pp.161

⁵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 추진계획을 실행 중이다.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광시북부만경제구, 청위경제구, 관중-텐수이경제구 등 3개 중점 개발구를 지정, 집중 육성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한 서부지역 전체 경제발전 도모를 꾀하며 중국정부는 3개 경제구의 개발을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박세근, "중국 서부의 서부대개발 추진계획", 수출입은행, 2009년 12월 16일.

⁶ 문화일보, "중국-중동-유럽 잇는 '철(鐵)의 실크로드' 만든다 - 관련 7개국 내년 예산 논의", 2010년 11월 10일 기사

확대는 특히 에너지분야의 협력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중양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서부 국경을 통해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을 경유하여 이란의 석유까지도 육로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2월에 개통한 중국-중양아시아 가스관은 중국의 첫 역외 가스관이자 중국 역사상 최대의 역외 가스관 프로젝트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 보장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⁷ 해당 가스관이 개통, 운행되면 중국은 에너지 확보뿐만 아니라, 중양아시아 국가와의 경제적 관계 또한 긴밀해져 이것이 경제, 정치, 안보정책에 까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중양아시아와의 에너지수급 문제로 맺어지는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러시아 및 중양아시아 국가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오랜 쟁점이었던 국경문제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 이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지역협력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창설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 기구에서 주도적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SCO는 중국의 중양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이익이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과 맞물려 초기의 안보쟁점 중심적 협력체의 성격을 넘어서 경제영역을 포함하여 포괄적 지역협력체의 성격을 가진다. SCO를 활용하여 중국은 러시아와 중양아시아 4국과 연합하여 극단적 이슬람세력의 확장과 테러활동을 근절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에너지 수입경로 다원화 추구하고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세력확장에 대비하기 위해 중양아시아 및 러시아와 에너지개발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양아시아에서 중국서부를 지나 동부에 이르는 에너지 수송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⁸

이와 같은 요인들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안보, 경제,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이 이 지역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⁹ 필자 역시 이러한 분류에 따라 조사하고 세분화한 것이다.

2.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경제전략 및 SCO의 역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목적으로 중국은 대중양아시아에 정책적 노력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⁷ 중평사(中評社), “중(中), 중양아시아 번영과 안정에 큰 힘”, 2009년 12월 16일 기사

⁸ 주재우, “중국의 에너지 협력외교-정상외교와 다자외교 전략의 시사점”, 비교문화연구, 2006년

⁹ Zhao, Huasheng. 2007. “Central Asia in China's Diplomacy.” Rumer, Eugene, Demitri Trenin and Huasheng Zhao. *Central Asia: Views from Washington, Moscow, and Beijing*. Armonk & London: M.E. Sharpe.

이러한 정책 요인들 중에서도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경제전략의 중심에는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있다. 물론 SCO는 군사, 경제, 인문 분야 등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이 창설하고 주도하는 유일한 중앙아시아의 다자 협력체로서 SCO의 성립과 안정적인 발전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다자적 주변외교를 실천하는 장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¹⁰ 이는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 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공급처 확보 측면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전략적 기구이다.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SCO를 통해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경분쟁 해소와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동반자 관계 구축을 통해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선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중국의 ‘서부대개발’¹¹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서부를 가로질러 유럽으로 연결·확장되는 광대한 시장 개척의 토대를 제공한다. 서부대개발 실시 이후 서부 지역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여, 2008년 국내총생산(GDP)이 2000년의 16,600억 위안(元)에서 58,257억 위안으로 약 3.5배로 증가하고, 11.4%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고정자산투자는 6,111억 위안에서 35,800억 위안으로 연평균 22.9%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서부 지역 2008년 GDP 규모는 중국 전체 GDP의 17.8% 수준에 그치고, 2008년 1인당 GDP도 16,000 위안으로 동부 지역의 43% 수준에 불과하다. 서부대개발은 205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데, 그 주요 추진 사업 내용으로는 인프라 시설의 확충, 생태환경 보호와 개선, 산업구조 조정, 과학기술 인재 양성, 생활환경 개선 등을 들 수 있다.¹² SCO의 경제협력은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의 해외진출시장을

¹⁰ Lukin, Alexander. 2007.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What Next?.” *Russia In Global Affairs* Vol.5, No.3 (July–September).

¹¹ 중국의 서부지역은 서북의 몽고,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동남아의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중국의 서부 개방의 중요한 관문으로, 주변국들과의 변경 무역과 경제 협력은 변경지역 성(省)들의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중요한 요충지이다. 서부대개발 지역은 충칭(重慶), 쓰촨(四川), 구이저우(貴州), 시짱자치구, 산시(陝西), 간쑤(甘肅), 칭하이(青海), 닝샤회족(寧夏回族)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내몽고(內蒙古)자치구, 광시좡족(廣西壯族) 등 12개 성·자치구·직할시가 포함되며, 총 면적은 686.7만km²로 중국 전체의 71.5%를 차지한다. 인구는 2008년 말 3억 6,523만 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27.9%를 차지하며, 중국 전체 소수민족 1억 449만 명 가운데 75%가 서부지역에 거주한다.- 도운주, “중국의 對상하이협력기구 전략적 이해 추구”, 현대중국연구, 2010

¹² 서부대개발의 대표적인 사업 육성 분야는 인프라 시설의 확충으로, 교통 통신과 에너지 부문의 중국 전역을 남북 간 동서 간 연결하는 ‘오종칠횡’(五縱七橫), 칭짱(靑藏) 철도 건설, 서부지역의 천연가스를 동부지역으로 수송하는 ‘서기동수’(西氣東輸), 서부지역의 전력을 동부지역으로 송전하는 ‘서전동송’(西電東送), 창장(長江)의 풍부한 수자원을 건조한 북부지역으로 수송하는 ‘남수북조’(南水北調) 건설 등이 있다. ‘서기동수’의 구간 중 하나로 서쪽의 신장 타림(塔里木)분지에서 동쪽의 상하이로 가로지르는 길이 3800km에 달하는 가스관을 통해 2004년

제공하고, 한편으로 과학기술과 우수한 인재의 중국 국내 유입은 SCO 회원국들에 서부대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서부대개발 전략의 외부 지지자와 조력자로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SCO가 지역경제협력을 전개하는 데 유리한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SCO 회원국의 정치, 군사, 안보와 반테러 영역에서의 협력은 지역경제협력을 전개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정치적 안보 환경을 제공하며, 각 회원국 경제의 양호한 발전 추세가 지역경제협력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기초를 다진다.

둘째, 각 회원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기인한 경제적 이익 추구가 지역경제협력의 내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무역·투자·에너지 등의 영역에서의 협력을 통해 경제의 장기적 안정과 공동발전을 추진한다. 중국 서부지역의 경우 중국 광물자원의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천연가스와 석탄, 석유는 각각 중국 전체 매장량의 약 82%, 51%,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속광물 중 크롬, 티타늄, 아연, 보크사이트 등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¹³ 한편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SCO는 그 지정학적 특성으로 이미 공유하고 있는 각국의 철도, 도로교통망 등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운송거리를 단축, 무역 원가를 절감하고 나아가 각 회원국의 무역 환경 조건 개선이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¹⁴

셋째, SCO 회원국 각각의 비교 우위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간의 경제적 보완성을 증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방직, 가전제품, 경공업 산업 등과 같은 노동 집약형 산업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는 석유, 천연가스, 화학비료 등 원자재와 자연자원 집약형 산업으로, 러시아는 항공과 우주비행 산업, 군수산업 등과 같은 과학기술 산업에서 보다 광범위한 협력 기초를

12월 30일부터 2008년 말까지 수송된 천연가스는 377억㎥에 달하며 2011년 말 서기동수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신장지역에서 생산된 천연가스와 중앙아시아에서 수입한 천연가스가 중서부지역과 창강삼각주(长三角), 주장삼각주(珠三角)지역에 공급될 수 있게 된다. - 도윤주, "중국의 對상하이협력기구 전략적 이해 추구", 현대중국연구, 2010

¹³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9, 「중국 서부대개발 개황과 시사점」, 해외경제·투자정보.

¹⁴ 1984년 칭하이 성의 시닝(西寧)과 거얼무(格爾木)를 잇는 제1구간 814km가 개통된 데 이어, 2006년 7월 1일 '신실크로드'(新絲綢之路)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칭짱 철도가 개통되었다. 칭하이성의 거얼무(格爾木)와 시짱자치구의 라싸(拉薩)를 연결하는 1142km 길이의 칭짱철도는 구간의 80% 이상이 해발 4500m의 고원지대에 있으며, 세계 최고 해발 고도 기록을 가진 페루 철도보다 250m 이상 더 높게 건설되었다. 칭짱철도의 개통으로 서부지역의 경제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2009년 3월 SCO를 통해 결속을 다진 중국과 카자흐스탄은 국경철도의 연결지점을 중국의 신장 휘얼귀스(霍爾果斯)로 하기로 확정하였는데, 이 철도 사업은 2004년 말 공사에 들어가서 2010년 초 개통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신장 징허(精河), 이리허구(伊犁河谷), 휘얼귀스를 연결하는 국경철도가 개통되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막대한 통과·중개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안정적인 수출입 루트를 확보하고, 상호 경제교류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지고 상호 간에 발전 잠재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¹⁵

크게 이 세 가지가 SCO를 통해 중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화 현상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국이 SCO를 통해 에너지자원을 통한 자원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III-2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중국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속성장 속에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 낮은 자원 이용 효율 등으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자원소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의 석유 소비국으로 1990년 하루 2.3백만 배럴(bbl/d)에서 2002년 5.2백만bbl/d, 2008년 7.8백만bbl/d, 2020년에는 15백만bbl/d로 석유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였다.¹⁶ 이처럼 중국은 석유, 석탄 등 필수 원자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보유 개발도상국에 대한 광산 투자 지원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원유 수입 중 중동지역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동의존도가 심각하여 에너지 수입원을 다원화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권과 정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경제개발협력회의를 갖고 장기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구조적인 인프라 지원과 투자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¹⁷ 이와 같이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SCO를 중심으로 한 협력을 통하여 대중앙아시아 경제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이것은 이들 간 경제적 교류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는 물론 이에 덧붙여 중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를 중화경제권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이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통상정책의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을 통해 현재 중앙아시아의 중국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조용하지만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¹⁵ 도윤주, “중국의 對상하이협력기구 전략적 이해 추구”, 현대중국연구, 2010

¹⁶ EIA, World Oil Consumption by Region, Reference Case, 1990-2030s [Online], http://www.eia.doe.gov/oiaf/ieo/pdf/ieoreftab_4.pdf. 2009. 12. 20.

¹⁷ 이를 위하여 2006년 6월 15일, 상하이에서 열린 SCO 제6회 정상회의에서 SCO 틀 내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유사한 ‘에너지 클럽’ 설립이 제안되었고, 이어 2009년 10월 SCO 제8회 총리 회의에서 재차 ‘에너지 클럽’ 또는 ‘에너지 논단’의 설립을 제안했다. 2007년 6월 29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SCO 에너지 책임자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5개국은 SCO 에너지 클럽의 설립에 동의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에너지 협력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안보의 토대로서 에너지 영역에서의 협력은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호이익의 동반자관계를 정립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Ⅲ. 중국의 대중아시아 영향력 확대

1. 중국의 대중아시아 무역과 직접투자

현재 중국 경제는 전체 아시아 경제의 약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중국의 위치는 한층 강화되었다. 2000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상품수출 규모는 미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적어도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외한 중국의 수출규모는 2006년 7월 803억 3700만 달러를 기록해 803억 1300만 달러에 그친 미국을 처음 앞지르기도 했다.¹⁸ 만약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된다면 중국경제 규모는 미국보다 더 커질 것이며 201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90년대에 흔히 세계화를 “미국화”로 여겼다면, 현재는 이를 “중국화”라고 평가하고 있으며¹⁹ 이러한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자국 상품의 높은 국제경쟁력과 수출대상국의 다변화로 이룩할 수 있었다. 중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커다란 경제적 성장을 하였고, “중국화” 현상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표 1] 중국의 대중아시아 연도별 교역액

연도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총계
1998	교역액	630,667	82,436	191,242	18,441	12,475	935,260
	수출	199,818	49,984	165,549	10,254	10,252	435,857
	수입	430,848	32,362	25,692	8,187	2,223	499,312
2000	교역액	1,556,764	51,465	177,611	17,170	16,157	1,819,167
	수출	598,600	39,432	110,174	6,793	12,102	767,102
	수입	958,164	12,033	67,437	10,377	4,057	1,052,068
2002	교역액	1,955,742	131,613	201,874	12,387	87,515	2,389,131
	수출	601,097	104,210	146,156	6,501	86,780	944,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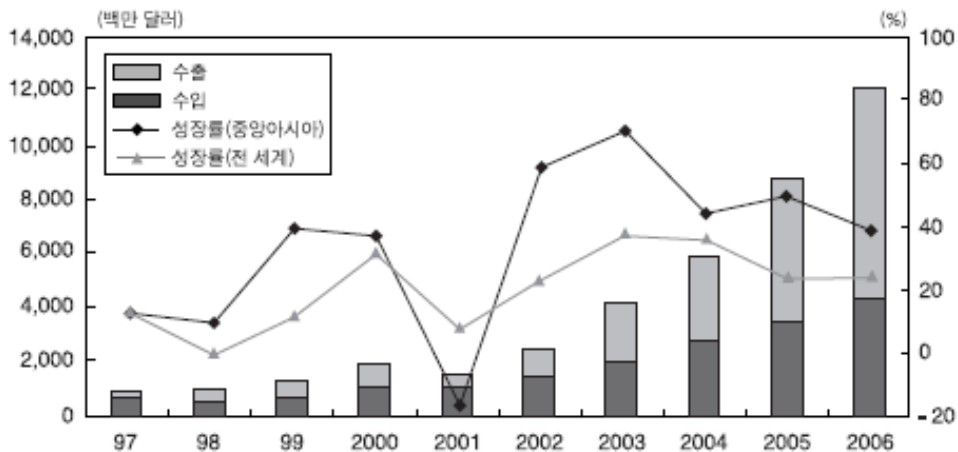
¹⁸ 와이드차이나 중국뉴스, “중국 수출규모 미국 앞질렀다”, 2006년 9월 18일 기사.

¹⁹ Vladimir Paramonov, “China & Central Asia: Present & Future of Economic Relations”, Central Asian Series, 2005.

	수입	1,354,645	27,403	55,718	5,886	735	1,444,387
2004	교역액	4,493,305	575,175	602,208	68,860	98,681	5,838,229
	수출	2,212,493	172,470	492,757	53,490	84,796	3,016,006
	수입	2,280,812	402,705	109,451	45,370	13,885	2,852,223
2005	교역액	6,801,149	681,238	970,481	158,061	109,431	8,720,360
	수출	3,898,883	230,221	865,923	143,865	90,441	5,229,333
	수입	2,902,266	451,017	104,558	14,196	18,990	3,491,027
2006	교역액	8,358,674	971,955	2,225,817	323,704	178,466	12,058,616
	수출	4,751,530	406,102	2,113,026	305,702	162,453	7,738,813
	수입	3,607,171	565,853	112,791	18,002	16,013	4,319,830
2007	교역액	13,866,386	1,129,325	3,779,624	523,937	351,415	19,650,687
	수출	7,447,250	765,964	3,666,461	513,652	302,266	12,695,553
	수입	6,419,136	363,361	113,163	10,285	49,149	6,955,094
2009	교역액	13,981,625	1,096,232	5,274,830	1,402,358	954,347	22,709,392
	수출	7,749,312	1,556,844	5,226,689	1,217,378	915,896	16,666,119
	수입	6,232,313	349,388	48,141	184,980	38,451	6,853,273
2010/10	교역액	16,410,660	1,933,966	3,245,516	1,079,112	1,241,107	23,310,361
	수출	7,428,922	973,060	3,197,148	1,030,396	417,619	13,047,145
	수입	8,981,738	960,906	57,368	48,716	796,488	10,845,216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최근 통계를 바탕으로 필자가 추가 작성

[그림 1] 중국-중앙아시아 무역총액 추이



출처: KIET “중앙아시아 시장 접근 강화하는 중국” 재인용

위의 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98년도까지 중국과 중앙아시아간의 무역은 꽤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2000년에서 2003년까지 무역 거래액은 세 배 가까이 증가하여 33억 달러에 이르렀고,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이러한 무역 증가 트렌드는 더욱 안정세에 접어들어 무역 거래액은 43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증가하여 약 3.7배 증가한 270%의 상승을 보였다. 이처럼 중국과 중앙아시아간의 무역 거래액은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1990년도와 비교하여 15배 정도의 증가를 보이는 눈에 띄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²⁰ 이처럼 최근까지 중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무역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양자 간의 교역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1)

이렇게 중국이 중앙아시아와의 무역활성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중앙아시아는 경제발전을 위한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즉 유라시아배후지로서 가지는 지정학적 위치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각종 원료에 대해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거대한 수출잠재력, 우수한 노동력, 비교적 완비된 교통, 운송체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이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의 공업생산액은 구소련에서 제4위이며 또한 자연조건이 우수하고 광산자원이 풍부하며, 주로 석탄, 철, 석유, 천연가스 및 유색금속 물질 등을 보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와 문화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고 공업생산은 구소련에서 6위를 차지하였으며 세계의 주요 면화 생산지이기도 하다. 비록 자연조건이 열악하고 경지가 부족하나 황금, 천연가스, 백은 및 동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기타 3개 중앙아시아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각자 상대적으로 우세한 부분이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석탄, 유색금속, 희귀금속물질을 생산하고 목축산업이 발달했으며, 타지키스탄은 수력이 매우 풍부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 지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은 중국의 에너지 수급 문제에 안정된 보급처가 될 수 있다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공업시설은 매우 노후화되어 있으며 경공업과 식품업은 거의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인접한 중국과 경제기술협력을 전개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성을 갖는 경제구조는 양 지역간의 협력을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과 인접해 있어 서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상인들이 국경 너머로 운반한 화물량이 지난 10년간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01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과의 국경무역 확대와 에너지 개발, 교통망 정비 등을 위한 상하이협력기구를 창설한데 이어 2003년

²⁰ Sadykzhan Ibraimov, "China-Central Asia Trade Relations: Economic and Social patterns",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ume 7, No. 1 (2009) p.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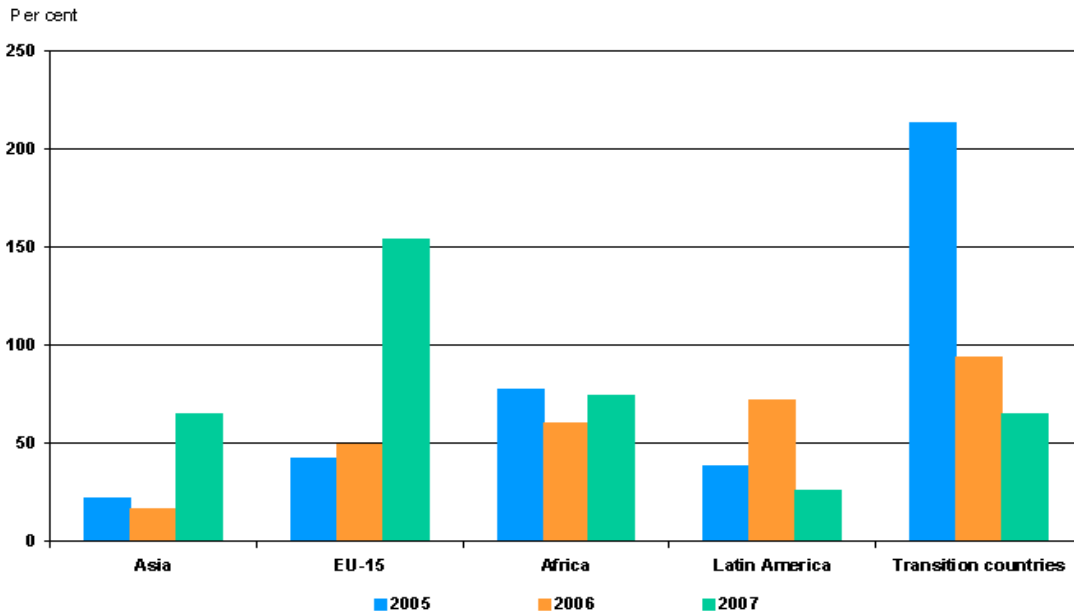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합의하였다. 2천년 역사의 “실크로드”는 현재 “철의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더욱 긴밀히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정부간에는 경제무역협력협정, 투자보장협정, 은행협력협정, 교통운수협정, 석유부문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이외에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경제와 기술합작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기적으로 양 지역간 경제무역합작을 진행시키기로 하였다. 중국정부는 중앙아시아에 특혜차관과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채소재배와 면화 생산부문에 협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동시에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생산, 투자, 기술, 문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부단히 발전시키고 강화해가고 있다. 이 모두는 양 지역간의 상품교역을 확대시키고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을 이루어내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 특히 앞서 이야기 했던 실크로드의 개통은 양 지역의 경제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²¹

현재 중국과 5개의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 양자 상업·경제관계의 형태는 우선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중국의 무역량에 비해 중국과 카자흐스탄 사이 상당한 무역량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카자흐스탄은 무역량뿐만 아니라 직접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림 2] 중국의 FDI 대상으로 선택된 국가들



출처: Source: 2007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2008).

²¹ 박병인, “중국의 대중중앙아시아 경제협력과 상하이협력기구 연구”, 『중국학연구』, 제29집, 2004.

Note: While Hong Kong is included in Asia, both the Virgin Islands and Cayman Islands are included in Latin America. New EU members (mostly transition countries) are not included in EU-15, but in transition countries.

[표 2] 중국의 카자흐스탄 투자현황(mln USD)

국 가	2010년 1 - 9월						
	Inflows (3+ 6+ 7)	%	해외직접투자(4+ 5)	Of which		Portfolio Investments	Trade Credits and Loans
				From direct investors	From branches and affiliated enterprises		
A	1	2	3	4	5	6	7
Total	51,399	100	14,881	13,100	1,781	11,802	24,717
중국	3,435.5	6.7	789.1	789.1	-	0.0	2,646.4

출처: The National Bank of Kazakhstan

중국은 2010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시행한 결과 10%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자국통화의 높은 가치와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해외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2조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이 되었고, 이들은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원 확보 등의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M&A장려 등에 주력하고 있다.²² 그 중에서도 자원확보를 위해 이들에게 더 중요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투자국 별로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79.9%로 가장 높았으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증가 속도(249%)가 가장 빨랐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대상국 상위 10개 국가²³에는 중앙아시아 어느 국가도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아직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중앙아시아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투자는 국가별로 편차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국해관과 외교부 자료를 검토해보면,

²² KIEP, 중국 국가 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p.9

²³ 순서대로 홍콩 1위, 남아프리카 2위, 버진 제도, 호주,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마카오, 파키스탄, 미국, 러시아가 뒤를 이었다. - 「2008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2010.01.07)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의 대중아시아 무역과 투자의 최대 파트너는 카자흐스탄임을 알 수 있다.²⁴ 특히 카자흐스탄은 2007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159만 달러에서 2008년 663만 달러로 최근 들어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²⁵ 이처럼 다른 국가에 대한 투자에 비해 미미하지만, 2006년 이후 눈에 띄는 투자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와 중국 간에는 무역 균형과 완제품 수출지로 중국의 역할 강화와 원자재 수출지로서 중앙아시아의 위치 강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해마다 양자 간 무역에 있어 불안정함이나 급격한 상승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²⁶ 아직은 불안정하고 미미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이 지역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하면서, 자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이들 간의 무역과 직접투자량은 이들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 또한 중국의 중앙아시아 무역 및 투자 진출은 동부 및 연안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 개발전략의 하나로 중앙아시아 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과²⁷ 신실크로드 건설과 북경-라사 간 철도 및 도로 등 신(新)인프라 구축으로 동부지역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값싼 소비재를 통한 국경무역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중국이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얼마나 더 활발한 활동을 벌일지를 가늠케 한다. 우즈베키스탄에 300만 위안의 지원을 하는 등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마다하지 않는 중국은 현재, 전보다는 훨씬 발전된 형태로 경제적 영향력을 넓혀 놓은 상태이다.

2. 중국의 대중아시아 에너지투자 및 협력

지난 30여 년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중국의 에너지 수요도 국내에서 생산 가공된 공급량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동시에 중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국가로 소비규모의 절대량도 증가하였다.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증가한 시기인 1994년부터 중국은 석유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런 석유에너지의 수입추세는 향후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국제수준과 비교해보면 중국경제는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자 향후에도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²⁴ 신태용, “중앙아시아 시장 접근 강화하는 중국”, KIET 산업경제분석,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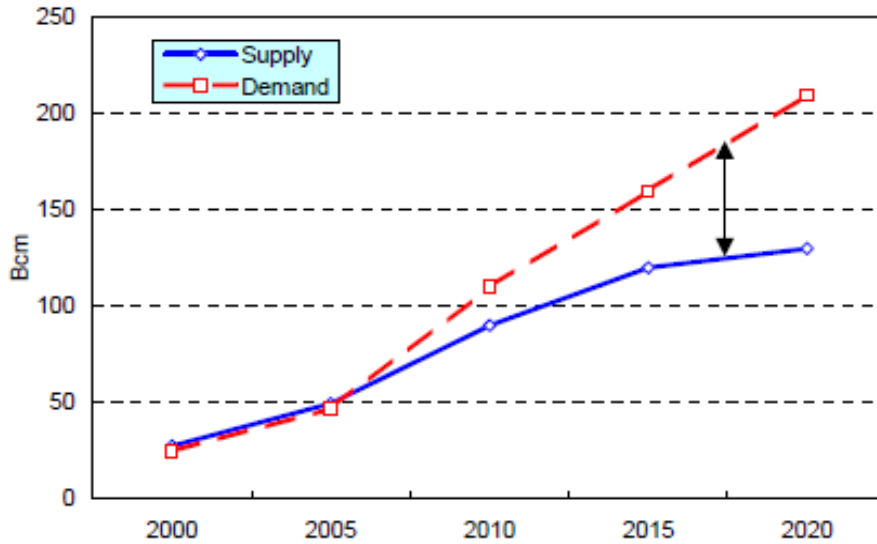
²⁵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9, <http://www.stats.gov.cn/tjsj/nds/2009/indexeh.htm>

²⁶ Vladimir Paramonov, “China & Central Asia: Present & Future of Economic Relations”, Central Asian Series, 2005.

²⁷ 특히 중국정부의 서부지역 경제개발은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신장위구르 등 서부 국경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분리독립운동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자급자족하던 시기의 에너지정책과는 다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략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²⁸

[그림 3] 중국의 가스생산 및 소비예측량 추이



출처: Chun Chun ni, “China's natural gas industry and gas to power generation”²⁹

중국이 이러한 에너지문제의 심각성을 정부차원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중국이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략한 후부터이다.³⁰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석유소비량이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경우 7-1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이 앞으로 20년 동안 현재와 같은 7%대의 고도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원유 수요량이 2002년 기준 350만 배럴에서 880만 배럴로 약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4년 중국의 석유소비량은 2억 8000만 톤에 달하였고, 중국은 이 중 약 40%인 약 1억 톤을 해외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찍부터 에너지자원 확보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7년 리펑 전 총리가 이른바 “중국의 에너지정책”을 발표하면서 자국이 당면한 에너지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미국이 “9.11”테러의 후속조치로 취한 일련의 외교, 군사적 대응조치를

²⁸ 이철원, “사회과학(社會科學): 중국의 에너지정책: 정책결정기구와 정책결정의 변천과정”, 중국연구, 2010

²⁹ Chun Chun ni, “China's natural gas industry and gas to power generation”, Electric Power & Gas Industry Group, Strategy and Industry Research Unit, The 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Japan, 2007, p.10.

³⁰ 주재우, “중국의 에너지정책과 동북아협력문제”, 국제정치논총, 2004

중국이 본격적으로 에너지문제를 국가안보이익의 개념으로 까지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이 분야에서도 중앙아시아 진출과 이 지역 국가와의 협력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의 에너지 부문의 주요 협력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2000년 투르크메니스탄과 석유, 천연가스 분야의 협력을 합의한 이후, 2001년 중국-카자흐스탄간 원유 수송관 건설 합의, 2002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과 에너지 부분 협력 합의, 2004년 우즈베키스탄과 석유 천연가스 개발 협력 합의, 2005년 중국석유집단의 카자흐스탄 석유회사인 PK 인수, 2006년 중국전신집단공사(CITIC)의 카자흐스탄의 네이션스 에너지(Nations Energy)의 인수합병, 2006년 투르크메니스탄과 천연가스 운송관 건설 합의, 2006년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의 우즈베키스탄 석유천연가스협력 프로젝트 수주, 2008년 투르크메니스탄과 천연가스 영역 협력 강화에 대한 합의 등을 이루어 낸바 있다. 이들 협력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 부문에서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협력은 관련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2001년 SCO 출범 이후 중국과 중앙아시아 사이의 협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5년 이후에는 중국국유기업이 카자흐스탄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중국 기업의 진출도 적극적이라는 사실이다. 정책부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2000년대 들어 이러한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협력이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산업정책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다시 말해 이 시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관련 외국자본 투자 유치와 에너지 수출 및 수송로의 다원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4] 중앙아시아-중국 천연가스관 노선



출처: 윤성학, [해외화제] 중국 '석유·가스' 싹쓸이, 한국 에너지안보 위협, 신동아, 2010년 2월 1일 기사

이처럼 중국은 중양아시아를 새로운 에너지자원의 공급처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진출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1997년 중국의 리펑 총리가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석유·가스 분야 협력 협정”과 “두 개의 송유관 건설에 대한 협정”(카자흐스탄 서부에서 중국 서부로 이어지는 송유관 및 이란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체결한 것이다. 이 계약에 따라 2005년 말 카자흐스탄 카스피해에서 시작하여 중국 서부지역을 잇는 총연장 3,000km에 이르는 송유관의 일부인 962km 구간이 완공되었다. 중국은 이 송유관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카스피해 원유를 중국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중양아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중국의 무차별적인 사냥은 약 41억 달러 규모의 카자흐스탄 PetroKazakhstan 인수전에서 잘 드러났다. 중국은 중양아시아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협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CNPC가 KMG(카자흐스탄 국영석유공사)에 PetroKazakhstan의 주식 일부를 양보한 경우처럼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자금을 지출하였다. 중국의 대중양아시아 에너지 외교의 절정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국 신장성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의 완공이다. 2006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니야조프는 중국을 방문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에 합의하였고, 2007년부터 시작된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 신장’을 연결하는 국제가스관 1단계 공사는 2009년 12월에 완공되었다. 이 가스관은 총 연장 1만 533km인데, 중양아시아 구간은 1,833km이며, 중국 구간은 무려 8,700km에 달한다. 중양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연결하는 구간은 2009년 12월 개통되었으며, 전체 확장과 지선의 최종 연결은 2011년으로 예정되어 있다.³¹

또한 현재 중국 정부는 카스피해 연안지역의 석유 채굴, 가공, 수송을 담당할 자국의 거대한 다국적기업 창설을 모색하는 등 에너지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진출전략”에서 정리된 중국의 중양아시아 지역 에너지부문에 대한 주요 투자사례와 필자가 추가한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아제르바이잔 투자 현황

중국은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와 중국석유화학총공사(Sinopec)가 주축이 되어 1998년 이후 아제르바이잔 내륙의 4개 유전(Southwest Gobustan유전, Kursangi-Garabagli유전, Muradkhanli-Jafarli-Zardab유전, Pirshagi유전)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³¹ 윤성학 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진출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1) Southwest Gobustan 유전

SOCAR가 20%, 중국 CNPC가 62.83%, 캐나다의 Arawak Energy가 17.17%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유 1.47억 배럴과 천연가스 7Tcf의 추정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에 2천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9억 달러를 이 유전에 투자하였다.

(2) Kursangi-Garabagli 유전

1998년 12월 15일 투자계약이 체결된 본 유전은 SOCAR가 50%, 중국의 CNPC가 30%, Amerada Delta-Hess JV가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유 7.3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4년 6월 기준으로 일일 6,600배럴의 원유가 생산된다. 중국은 본 유전에 총 1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3) Muradkhanli-Jafarli-Zardab 유전

1998년 12월 15일에 체결된 본 유전은 SOCAR와 CNPC가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CNPC는 이전 사업운영자였던 영국의 Ramco로부터 지분을 인수하여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생산물분배협정(PSA)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추정 매장량은 원유 7.3억 배럴이며, 중국은 현재까지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4) Pirshagi 유전

중국석유화학총공사(Sinopec)는 2003년 6월 아제르바이잔과 매장량 7,500만 배럴 규모의 Pirshagi 육상유전 개발을 위한 PSA를 체결하였다.

나) 우즈베키스탄 투자현황

2006년 8월 중국석유가스공사(CNPC)는 러시아·한국·말레이시아·우즈베키스탄이 체결한 아랄해 공동 유전개발에 참가하고 있으며, 자회사 'CNPC Silk Road'를 설립해 석유탐사에 향후 5년 동안 2억800만 달러 투자계획 등 에너지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CNPC는 우즈베키스탄 '우즈네프찌가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부하라 히바지역의 소규모 유전 23개 광구를 개발 예정에 있는데, 23개중 20개 유전은 규모가 작으나 중국의 기술지원으로 개발 계획 중이다. 또한, 중국 'China Petroleum Technology & Development Corporation'사는 2004년

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 '우즈네프찌가스'에 굴착기 10기를 7000만 달러에 판매한 바 있으며, 중국 수출입은행의 전대 차관을 활용해 2007년에 2억 달러 상당의 굴착기 23기를 공급한바 있다.

다) 카자흐스탄 투자 현황

중국은 CNPC를 통해 1997년부터 자나줄 유전(추정 매장량 10억 배럴)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유전개발회사인 악토베무나이가스(Aktobemunaigaz)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002년에는 카샤간 유전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BP가 지분을 내놓자 이를 사려 했으나 서방 메이저들이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매입에 실패하였다. 중국은 2005년 8월 카자흐스탄의 콤콜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페트로카자흐스탄을 41억 8천만달러에 인수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페트로카자흐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의 추정 매장량은 5억 5천만 배럴에 달한다. 2005년 10월 추정 매장량 35억 배럴에 이르는 다르칸 유전을 KMG와 함께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르칸 유전은 스페인의 국영석유회사 렵솔이 5년간 공동 운영권을 손에 쥐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CNPC가 높은 값을 불러 합의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주요 카자흐스탄 석유부문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페트로카자흐스탄(PetroKazakhstan) 인수

중국 CNPC는 2005년 10월 27일 러시아의 루코일, 인도의 석유천연가스공사(ONGC)를 제치고 카자흐스탄 제3위의 석유공사인 페트로카자흐스탄(PetroKazakhstan)을 총 41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하였다. 이는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기업 인수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일일 15만 배럴(중국의 일일 소비량 670만 배럴의 2% 수준)을 확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에너지부문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2) 악토베무나이가즈(Aktobemunaigaz) 지분 인수

CNPC는 카자흐스탄 석유회사인 악토베무나이가즈의 지분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0.3%와 25.1% 인수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예상 투자액인 41억 달러를 투자하여 예상 매장량 10억 배럴을 원유를 확보하게 되었다.

(3) North Buzachi 유전 지분 인수

CNPC는 2003년 9월 카자흐스탄 북서부에 위치한 North Buzachi 유전에 대한 지분 65%,

35%를 각각 ChevronTexaco, 사우디아라비아 NimirPetroleum으로부터 인수하였다. 본 유전의 추정 매장량은 10억~15억 배럴, 가채 매장량은 5.1억 배럴이며, 총 8억 달러의 투자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4) 카자흐스탄-중국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

카자흐스탄의 원유를 직접 중국으로 공급하는 카자흐스탄-중국 송유관 공사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카스피해 연안의 석유 생산 중심지 아티라우(Atyrau)에서 켄키야크(Kenkiyak)에 이르는 1단계 공사는 2003년에 완공되었으며, 카자흐스탄 중부 아타수(Atasu)와 중국 북서부 신강지역의 알라산코이(Alashankoy)간 962km 구간의 2단계 공사는 2005년 12월 완공되었다. 현재 켄키야크(Kenkiyak)에서 쿰콜(Kumkol)에 이르는 3단계 공사는 페트로카자흐스탄 주관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2009년 9월에 완공되었다. 본 송유관의 건설로 중국은 처음으로 해외 원유를 육로 송유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공급받게 되었고, 카자흐스탄 역시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첫 수출을 하게 되었다. 2004년 9월부터 시작된 이 공사에 중국은 총 3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 구간의 완성으로 2006년에는 연간 5천만 배럴, 2011년에는 1억 배럴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스관이 현실화되면서 앞으로 연간 8억m³의 천연가스가 중국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카자흐스탄 유전 및 송유관 현황



출처: 박경은, “[에너지가 미래다] 카스피해는 어떤 곳”, 『경향신문』. 2006년 5월 8일

라) 투르크메니스탄 투자현황

중국의 '서기동수' 2호 파이프라인 프로젝트³²는 중국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으로 수송량과 길이, 압력 및 투자규모와 건설시간 등 사상 최대규모이다. 이것은 투르크메니스탄(188km)-우즈베키스탄(530km)-카자흐스탄(1,300km)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연결되며, 중국 내 14개 성을 통과하는 1개 주선 건설 및 주요 거점과 연결되는 8개 지선으로 구성되어 총 8,794km에 이르는 규모의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07년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연간 30bcm을 공급하는 30년 장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6월 10bcm을 공급하는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총 공급량을 연간 40bcm으로 증가시켰다

또한 2009년 러시아로의 가스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고, 2009년 4월 Central Asia Center 가스파이프라인 시스템 폭발 사고로 수송물량이 감소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South Yoloten 가스전 개발을 서두르게 되었다. 따라서 6월 Tachberdy Tagiev 부총리는 베이징을 방문하여 South Yoloten 가스전 개발을 위한 자금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중동으로부터 50.9%, 아프리카 24.3%, 아시아 태평양 15.2% 수입하면서 전략적 에너지협력 동반관계를 구축해왔으나 최근 에너지 수급처의 다원화라는 관점에서 중양아시아로 접근을 확대하고 있다. 비록 중양아시아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양 국가간의 에너지 협력이 초기단계라고 볼 때,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석유가 가장 풍부한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각국과의 투자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이 중양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화'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³² '서기동수'는 서쪽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동쪽으로 옮긴다는 정부 프로젝트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에너지수급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완공된 신장-상하이 '서기동수 1호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연간 120억m³의 천연가스를 중국 최대 공업지역인 장강삼각주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서기동수 2호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2010년에 60억m³의 공급시작으로 향후 3-4년 내 300억m³로 확대할 계획이며 2010년에 시작하는 '3호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연결할 계획이다.

IV.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과 러시아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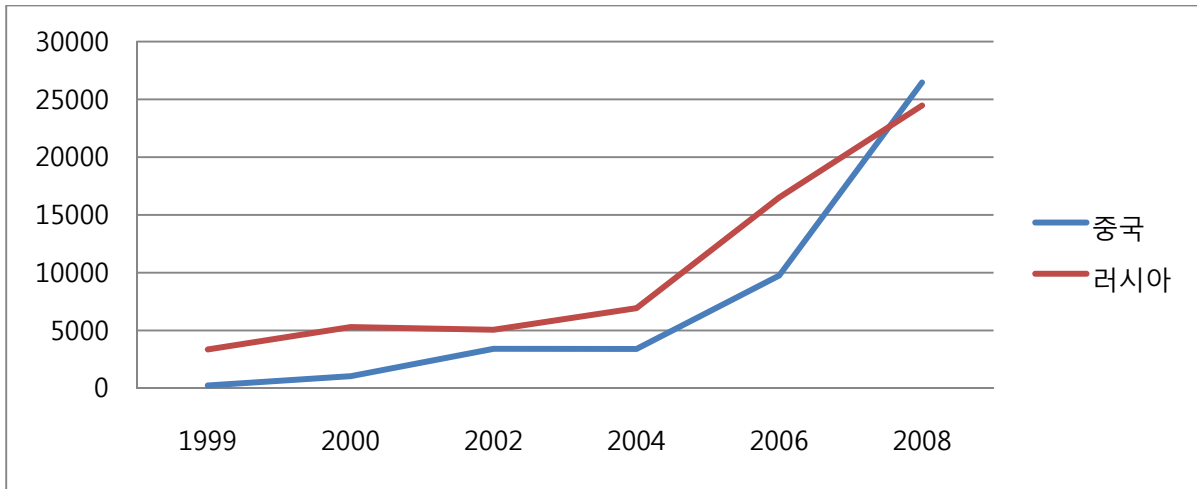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가장 비중 있는 경제적 파트너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더욱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영향력으로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이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놓고 보면, 과거에는 중앙아시아 수출, 수입 비중이 있어 러시아가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중국이 2004년에서 2005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교역액 증가를 보이면서 러시아 뒤를 바짝 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의 중국·러시아 교역 현황(mln USD)

		1999	2000	2002	2004	2006	2008	총계	
수출	중 국	카자흐스탄	47.31	673.7	1023.0	1967.3	3279.3	7327.8	14,318.41
		우즈베키스탄	11.8	10.9	24.9	371.3	514.4	331.7	1,265
		키르기스스탄	25.3	44.1	41.3	39.3	38.1	108.8	296.9
	러 시 아	카자흐스탄	1138.6	1751.4	1497.8	2838.1	3476.5	4379.9	15,082.3
		우즈베키스탄	423.2	602.0	310.6	556.2	1172.4	1478.7	4,543.1
		키르기스스탄	70.7	65.1	80.0	137.7	153.8	249.9	762.2
수입	중 국	카자흐스탄	81.6	151.0	313.0	758.2	5226.7	10671.7	17,202.2
		우즈베키스탄	30.1	43.4	114.6	182.9	446.7	1327.8	2,145.5
		키르기스스탄	36.8	36.9	59.1	80.1	245.6	6700.4	7,158.9
	러 시 아	카자흐스탄	1350.6	2439.2	2548.8	4812.6	9867.3	15062.3	36,080.8
		우즈베키스탄	264.1	301.9	498.7	843.6	1194.9	2200.8	5,304
		키르기스스탄	109.3	132.5	116.7	293.7	652.3	1099.8	2,404.3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

[그림 5] 중국과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3국 무역액 변화 (mln USD)



		1999	2000	2002	2004	2006	2008
수출	중국	84.41	813.11	2,925.31	2,377.9	3,831.5	7,768.3
	러시아	1,632.5	2,418.5	1,888.4	3,532	4,802.7	6,108.5
수입	중국	148.5	231.2	486.7	1,021.2	5,919	18,699.9
	러시아	1,724	2,873.6	3,164.2	5,949.9	11,714.5	18,362.9
교역액	중국	232.91	1,044.31	3,412.01	3,399.1	9,750.5	26,468.2
	러시아	3,356.5	5,292.1	5,052.6	6,931.1	16,517.2	24,471.4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의 교역액을 놓고 보면 시작은 러시아가 앞섰으나 2006년 이후 중국이 러시아를 앞지르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부문에 있어서는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넘어섰고, 중앙아시아 국가 중 중국, 러시아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카자흐스탄에서는 아직은 러시아가 앞서는 상황이지만, 중국이 이 뒤를 바짝 쫓고 있어 투자에 있어서도 중국이 러시아를 곧 따라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표 5]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5개국 투자현황

	2000		2005		2008		2009	
	Thou.USD	%	Thou.USD	%	Thou.USD	%	Thou.USD	%
카자흐스탄	3453	2.6	204314	32.9	762159	7.4	388741	4.2
우즈베키스탄	929	0.7	6968	1.1	96823	0.9	87118	1.0
키르기즈스탄	7	0.0	1247	0.2	386029	3.8	200535	2.2
투르크메니스탄	2934	2.3	-	-	6357	0.1	6205	0.1
타지키스탄	-	-	496	0.1	171962	1.7	111954	1.2

출처: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표 6] 중국·러시아의 카자흐스탄 투자현황 비교(mln USD)

국가	2010년 1월 - 9월						
	Inflows (3+ 6+ 7)	%	해외직접투자(4+ 5)	Of which		Portfolio Investments	Trade Credits
				From direct	From branches		
A	1	2	3	4	5	6	7
Total	51,399	100	14,881	13,100	1,781	11,802	24,717
중국	3,435.5	6.7	789.1	789.1	-	0.0	2,646.4
러시아	5,306.1	10.3	592.6	469.4	123.2	23.7	4,689.8

출처: The National Bank of Kazakhstan

[표 7] 중국·러시아의 키르기즈스탄 투자현황 비교(mln USD)

	2006	2007	2008	2009
전체	335.6	436.8	866.2	660.9
중국	7.3	29.1	57.5	51.5
러시아	19.8	13.4	36.2	44.9

출처: 키르기즈스탄 국가통계청

이처럼 빠르게 확장해 가는 중국화 현상을 견제하면서도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은 현재 이 지역에서 중국을 제외시킨 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지역협력기구의 역할 강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독립국가연합(CIS), 상하이협력기구(SCO),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C) 등과 같은 지역협력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비에트 해체 이후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상기 기구들은 사실상 러시아 영향력의 쇠퇴를 흡수하는 방과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³³ 하지만 중국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SCO) 내에서 사실상 중국이 더욱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자 러시아의 불안이 심화된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SCO를 잘 활용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게 되었고, 중국정부는 우선 지역안보측면에서 SCO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중국의 중앙아시아 영향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여 SCO를 통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4국과 연합하여 극단적 이슬람세력의 확장과 테러활동을 근절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에너지 수입경로 다원화와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세력확장에 대비하여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와 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였다.³⁴ SCO라는 유용한 경제협력 수단을 잘 활용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그 중에서도 CIS국가들 중 친러성향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협력 EURASEC³⁵을 통한 경제협력, 집단안보조약 CSTO를 통한 안보협력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³⁶

하지만 러시아는 과거 실패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푸틴이 지배한 8년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BRICS를 구성하는 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중국과 유사하게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시금 국제무대의 주요 행위자로 복귀하고 있다.

³³ 박정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관계의 핵심 이슈”, 2007

³⁴ 권호령,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권력투쟁과 함의”, 『전략연구』 통권 제38호, 2006

³⁵ EURASEC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복원에 기여하고 있다.

EEC또는 EAEC로 불리는 EURASEC은 1995년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의 관세동맹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 기구에 힘입어 2010년 7월 1일(벨라루스는 7월 6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개정 관세법이 시행됐다. 러시아는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과 2007년 10월 6일 두산베에서 3국 간 통합관세지역 조성 및 관세동맹 조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2009년 11월 27일 단일 관세법 및 비관세 규정의 채택에 합의했으며 3국

정상은 2012년까지 통합관세율 및 통합 세관 절차, 비관세 규정에 관한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세동맹에 따른 재정적 이익은 러시아가 미화 4000억 달러,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가 각각 1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경제매거진, “[트랜드]러, 수출품에

관세부과...3국간은 면세”, 2010년 11월 10일 기사.) 또한 올해 초, EURASEC은 국가 간 지급회계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단일통화 제정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 서울경제,

“유라시아경제공동체 단일통화 제정 추진”, 2009년 3월 15일)

³⁶ 고재남,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책과 다자주의”, 2010

따라서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을 경계한다기 보다는 현재 세계 무대에서 여러 이슈에 대해 중국과 노선을 같이 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단독적인 국제사회 주도를 비난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한 러시아의 외교안보적인 입장 및 노선은 중국에게는 커다란 원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전략적 차원에서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하여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며 나아가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³⁷

정리하자면, 중앙아시아의 중국화 현상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최선책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협력기구를 잘 이용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기구로는 EURASEC을 꼽을 수 있지만 이러한 러시아의 대응이 중국화 현상, 중국위협론³⁸이라고 일컬어 지는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대한 경계의 측면이라기 보다는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렇듯 중국의 지나친 성장은 결국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적절히 미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시금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국화 현상을 실감할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중국의 대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증대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중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과 교역량, 직접투자, 에너지 투자와 협력 부문을 알아보았다. 우선 중국의 대중앙아시아로의 접근은 양국 간의 상호필요성을 바탕으로 가속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으로의 무역과 진출은 동부나 연안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 개발전략의 하나로 중앙아시아 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정부의 서부지역 개발은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신장-위구르지역 등 서부 국경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분리독립운동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었으며 석유자원과 운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장-위구르지역의 안정은 중국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 하며 이것이 이 지역 개입의 중요한

³⁷ 연현식,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신안보질서형성”, 동서연구, 2009

³⁸ ‘중국위협론’은 부상하는 중국의 존재(중국의 경제발전과 군사력증대, 석유 등 에너지 소비량 증가를 포함)가 주변 약소국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이유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경제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중양아시아를 중화경제권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이 중국의 대 중양아시아 통상정책의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정책을 통해 현재 과거에 비해 뚜렷한 교역량과 투자, 에너지부문 투자와 협력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조용하지만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중양아시아지역의 외교·경제 분야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확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세력 확장이 러시아·미국·EU·중양아시아 국가들에 중국 공포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주변국의 이러한 경계심은 현재 이 지역에서 중국을 제외시킨 러시아·중양아시아국가들의 집단안보조약(CSTO)과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C)의 역할 강화 모색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다분히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SCO의 위상과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황 전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³⁹ 하지만 본인은 이러한 러시아의 대응이 중국화 현상, 중국위협론이라고 일컬어 지는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대한 경계의 측면이라기 보다는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러시아가 경제적 우위를 이유로 단기적인 이익만을 보고 중양아시아에 접근하려는 태도는 앞으로 서로의 이익을 동등하게 배려하는 외교 자세로 변화시켜야 할 때라는 것을 러시아정부는 자각해야 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키워가는 중국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신(新) 실크로드 철도건설이나 동양적 동질감을 강조하는 중국의 진출전략은 중양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이질감과 경계심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중국의 조용하고 실리적인 외교 정책은 교역과 에너지투자 및 협력을 통해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중양아시아 지역의 중국화는 이미 태동하였으며 이것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³⁹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중양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p.132-133.

<참고 문헌>

- 권호령,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권력투쟁과 함의”, 『전략연구』 통권 제38호, 2006
- 김인, “중국의 중앙아시아정책과 상하이협력기구(SCO)”,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9
- 박상남, 『현대중앙아시아』,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0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중국 서부대개발 개황과 시사점」, 해외경제·투자정보, 2009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0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 연구소, 『카자흐스탄국별 리포트』, 2010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 연구소, 『우즈베키스탄국별 리포트』, 2010
- 윤성학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진출전략』, 2009
- 이재영·박상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2007
- 주재우, “중국의 에너지정책과 동북아 협력 문제”, 경희대학교, 2004
- 박정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관계의 핵심 이슈”
- 고재남,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책과 다자주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0
- 조정원, “중국-카자흐스탄 석유 및 가스협력 관계”, 국민대학교, 2010
- 도윤주, “중국의 對상하이협력기구 전략적 이해 추구”,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Vol11, 2010
- 이정태, “중국의 상하이협력기구 지정전략”,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2007
- 이철원, “사회과학(社會科學): 중국의 에너지정책: 정책결정기구와 정책결정의 변천과정”, 중국연구, 2010
- 박병인, “상하이협력기구와 중국의 경제적 이해”,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 2005
- 지재운,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 중국학연구, 2005
- 연현식,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신안보질서형성”, 동서연구, 2009
- Vladimir Paramonov, “China & Central Asia: Present & Future of Economic Relations”, Central Asian Series, 2005
- Vladimir Paramonov & Oleg Stolpovski, “Russia and Central Asi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Defense Academy of the United Kingdom*, 2007
- Sadykzhan Ibraimov, “China-Central Asia Trade Relations: Economic and Social Patterns”,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ume 7, No. 1, 2009
- Zhao, Huasheng, “Central Asia in China's Diplomacy.” Rumer, Eugene, Demitri Trenin and Huasheng Zhao. *Central Asia: Views from Washington, Moscow, and Beijing*. Armonk & London: M.E. Sharpe, 2007

Chun Chun ni, “China's natural gas industry and gas to power generation”, *Electric Power & Gas Industry Group, Strategy and Industry Research Unit, The 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Japan, 2007

Ferghana news, “China-Central Asia Railroad Faces Economic, Political Risks”, 2008년 11월 8일
기사 <http://enews.ferghananews.com/article.php?id=2443>

문화일보, “중국-중동-유럽 잇는 ‘철(鐵)의 실크로드’ 만든다 - 관련 7개국 내년 예산 논의”, 2010년 11월 10일

연합뉴스, “후진타오, 카자흐 가스관 개통식 참석”, 2009년 12월 13일

서울경제, “中러 ‘新 밀월시대’로 접어드나”, 2010년 11월 22일

중평사(中評社), “중(中), 중앙아시아 번영과 안정에 큰 힘”, 2009년 12월 16일
“중국과 터키를 잇는 새로운 실크로드인 실크철도 계획”

<http://oklawyer.blog.me/90100845944> 네이버 검색

“중앙아시아 가스파이프라인 완공과 시사점”, 검색일 2010년 12월 12일,

http://cafe.naver.com/chinainstitut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137

서울경제, “유라시아경제공동체 단일통화 제정 추진”, 2009년 3월 15일

경향신문, “[에너지가 미래다] 카스피해는 어떤 곳”, 박경은, 2006년 5월 8일

한국경제매거진, “[트랜드]러, 수출품에 관세부과...3국간은 면세”, 2010년 11월 10일

신동아, [해외화제] 중국 ‘석유·가스’ 싹쓸이, 한국 에너지안보 위협, 윤성학, 2010년 2월 1일

IMF <http://www.imf.org/external/pubs/ft/fandd/2010/12/pdf/fd1210.pdf>, “Emerging markets a place at the table”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중국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

중국경제정보분석 <http://www.ceia.co.kr>

중국국가통계청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09 참조 <http://www.stats.gov.cn/>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http://www.gks.ru/>

아시아개발은행 <http://www.asiandevbank.org/>

The National Bank of Kazakhstan <http://www.nationalbank.kz>

The National Bank of Uzbekistan <http://nbu.com>

